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0년 12월 30일 | 선임조사역(G2) 안영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48천 km ² 	인구 1.7억 명 (2020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3,178억 달러 (2020 ^f) 	1인당GDP 1,888달러 (2020 ^f) 	통화단위 Taka 	환율(U\$기준) 84.45 (2019) 

-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이 인도와 접하고, 남동부 지역 일부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세계 8위(아시아 5위)의 인구대국으로, 소득수준 향상시 내수시장 성장이 기대됨.
- 1947년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골 지역(現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으로 편성되었음. 이후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에 반발한 동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끝에 1971년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이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전쟁에 승리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건국하였음.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업 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8년 최초로 최빈국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現총리의 3연임으로 정치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리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 인도 등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단,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 난민 송환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 (북한과는 1973. 12. 16 수교)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1973),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사증면제협정(1983), 이중과세방지협약(1984), 투자증진·보호협정(1988), 대외경제협력기금양해각서(1993), 경제기술협력협정(1995),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군수·방위산업협력양해각서(2004), 무상원조협정(2014)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276,319	1,238,299	1,282,342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수입	285,756	346,507	404,703	의류, 신변잡화(신발·가방 등), 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9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312건, 371,85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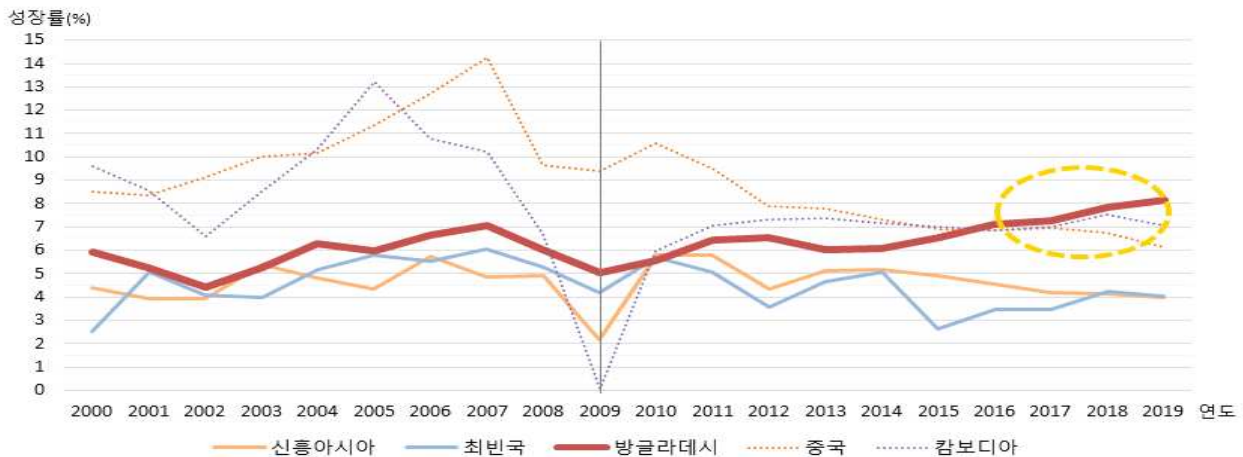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7.1	7.3	7.9	8.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5.9	5.4	5.8	5.5	5.6
재정수지/GDP	-3.4	-3.3	-4.6	-5.4	-6.8

자료: IMF / 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는 전년 7월 1일 ~ 당년 6월 30일(예: 경제지표상 2020년은 2019.7.1.~2020.6.30.을 의미)

의류 수출 호조,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로 2000~19년 중 고도 경제성장 지속

-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4~7%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셰이크 하시나 現총리 취임 후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선 2009년부터는 2009~10년 5%대, 2011~15년 6%대, 2016~18년 7%대, 2019년 8%대 등 경제성장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MF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신흥국 및 전세계 최빈국(각각 30개국, 47개국, 평균치)과의 경제성장률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17/18회계연도 및 2018/19회계연도에는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 추이: 아시아 신흥국 및 최빈국과의 비교(200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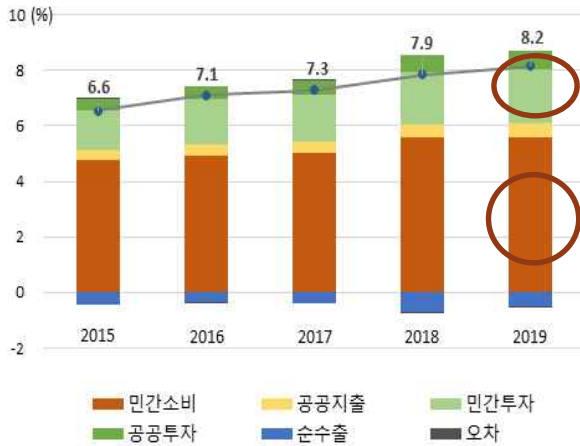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주) 아시아 신흥국(IMF 기준): 중국·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 30개국 / 전세계 최빈국(UN 기준): 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 47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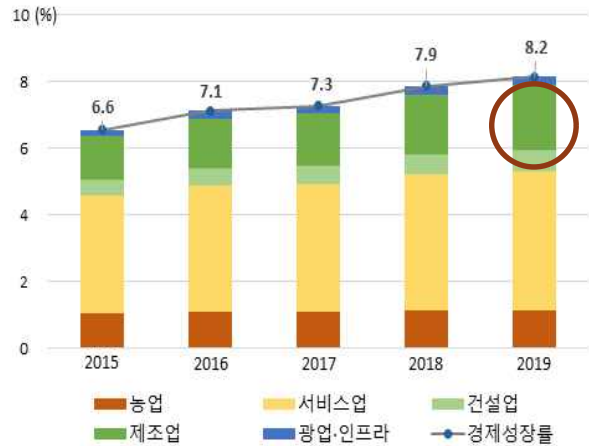
- 이러한 고도성장은 정부의 꾸준한 경제개혁 노력과 함께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원조자금 및 외국인투자 등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의류 부문의 지속적 수출 증대 등에 의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며, 2018/19회계연도에는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률(8.2%)을 시현하였음.
- 수요 측면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분석시 민간소비가 약 70%, 민간투자(22~23%) 및 공공투자(7~8%)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약 2:3:5의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업 및 의류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경제

수요 측면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공급 측면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자료: 방글라데시 통계청, "국가계정 통계(2018년~2020년)"

- **(민간소비)**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인 방글라데시는 중동지역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74개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근로자(1,200만 명 상당)들의 근로소득 송금액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 구매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신규 파견 근로자 수는 2010년 42.7만 명에서 2019년 69.3만 명으로, 같은 기간 해외 근로자 송금액은 110억 달러에서 164억 달러(GDP의 5.4%)로 증가함.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2010년부터 연 4~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8/19회계연도에도 전기 대비 3.9% 증가하면서 GDP의 68.7%를 차지하였음.
- **(건설·투자)**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¹⁾은 경제성장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국가 예산의 약 1/3을 연간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lan, 인프라 개선 목적의 정부지출 항목)에 할당하여 교통·전력·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음. 또한, 취약한 재정 보안을 위해 국제기구 원조자금 및 PPP 방식의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파드마 다목적 대교(건설비 37억 달러 상당), 다카 고속철(1단계, 건설비 28억 달러 상당)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임. 2010~19년 중 건설업 부문의 평균 성장률은 8.5%,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평균 8.9%에 달하였으며, 2018/19회계연도에는 각각 10.3% 및 8.4%를 기록함.
- **(의류 수출)** 세계무역기구(WTO)²⁾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이는 역내 경쟁국 대비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최빈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특혜제도³⁾를 활용한 성과임.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상품수출의 80% 이상,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최근 10년간 연 7.3%가 넘는 상품수출 증가율을 견인하고 있음. 2018/19회계연도에는 정부의 의류 부문 최저임금 인상책(67% 인상, 5,300다카 → 8,875다카)에 따른 경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의 반사이익 등에 힘입어 의류 수출액이 전기 대비 11.5% 증가한 34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October 2019. 방글라데시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는 141개국 중 105위로, 세부 평가항목 중 인프라 경쟁력 부문은 도로·철도 네트워크 연결의 비효율성, 전력 및 용수 접근 애로 등이 반영되어 115위에 그침.
 2)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20", August 2020. 2019년 기준 세계 의류 시장 점유율은 중국(30.8%), 방글라데시(6.8%), 베트남(6.2%) 순으로 집계됨.
 3) 최빈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무역특혜제도로, EU의 EBA 제도(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 제공)가 대표적임. EBA 혜택에 힘입어 EU는 방글라데시의 제1위 의류 수출대상지역(전체 의류 수출의 약 60%)으로 부상함. 한편, 미국 정부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부문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정부의 개선 노력 부족 등을 사유로 2013년부터 관세특혜제도(GSP) 시행을 잠정 중단함.

국내경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경제성장 둔화 추정

- 방글라데시의 2019/20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전망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전기 대비 약 4%p 하락한 평균 4%로 추정됨. 이에 따라 40년래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수준을 감안하면 양호한 편임.
- 이는 의류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상품·서비스 수출입)가 GDP의 약 30%에 불과한 등 방글라데시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정도가 낮으며,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여파가 회계연도의 일부에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IMF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20년에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방글라데시는 3월 8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이어진 두 달간(3.26~5.30)의 봉쇄조치로 인해 식료품·생필품 등 물자 공급 차질, 근로자 (일시)해고⁴⁾에 따른 소비 불안심리 확산 등의 현상이 나타났음. 단, 2019/20회계연도부터 시행한 정부의 해외송금 인센티브 정책⁵⁾에 힘입어 연간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182억 달러, 전기 대비 10.9%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같은 기간 민간소비 증가율(전기 대비) 또한 예년과 유사한 4.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 **(건설·투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프라 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연간개발계획 상의 인프라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우선순위 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에 대해 자금 지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재원 확보를 위해 인프라 예산을 재배분하였음.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FDI 유입액이 감소⁶⁾하는 등 민간투자도 위축되어 2019/20회계연도의 건설업 성장률 및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다소 줄어든 각각 9.1%, 6.7%에 그칠 전망이다.
- **(의류 수출)**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수출협회(BGMEA)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의류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EU(62%)와 미국(18%)을 중심으로 37억 달러 상당의 주문 취소·지연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3~5월 중 의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4.8%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글로벌 봉쇄조치가 완화된 6월에는 의류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2019/20회계연도 의류제품 수출 및 총 상품수출 규모는 각각 280억 달러(-22.1%), 308억 달러(-20.6%)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2020/21회계연도⁷⁾에는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에 따른 상품 수출 정상화, 해외근로자 송금에 기반한 민간소비 회복,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가 회계연도 도입부에 반영되어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별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ADB(9월)	IMF(10월)	WB(10월)	EIU(12월)	Fitch Solutions(11월)	방글라데시 정부(10월)
2019/20	5.2	3.8	2.0	5.2	5.2	5.2
2020/21	6.8	4.4	1.6	5.6	6.0	8.2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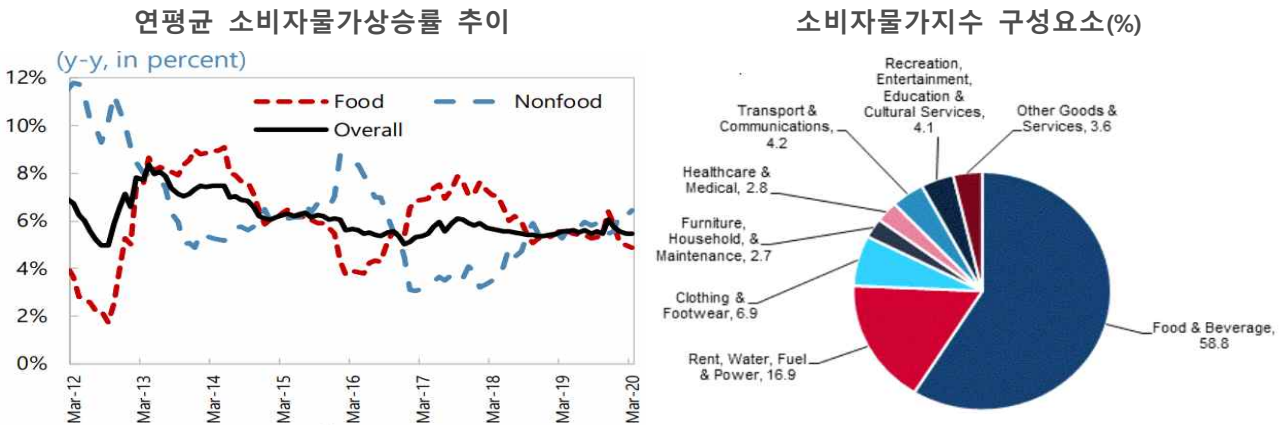
4) IMF, "Staff Report in the context of the Requests for Disbursement under the Rapid Credit Facility and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June 2020. 방글라데시 통계청의 고용현황 조사자료(2016/17)에 따르면, 총 노동인구(6,350만여 명)의 약 85%가 고용 취약계층인 비공식 경제활동 종사자에 해당됨.
 5)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유인책으로 2019/20회계연도부터 송금액의 2%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2021.1.31限) 중임.
 6)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약 1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8% 감소하였음.
 7) 2020/21회계연도 전망(EIU, 전기 대비): 상품수출 증가율 20.1%, 민간소비 증가율 5.5%, 총고정투자 증가율 6.2%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수급 불안,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중앙은행 목표치 초과 전망

- 방글라데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약 60%가 식음료 품목으로 구성되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변동이 물가 수준을 좌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LNG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국제가격 동향도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11회계연도의 10.9%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8/19회계연도에는 5.5%를 기록하였음. 2019/20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감염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농산물 유통 차질 및 폭우 피해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5.5%)를 다소 상회한 5.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0/21회계연도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로 농산물 작황 및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EIU, 2020년 41.7달러, 2021년 45달러 전망), 소비심리 회복,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 등으로 식음료 및 non-식음료 물가가 모두 상승하여,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관리목표(5.4%)를 초과한 5.9%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20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EIU): 5.4(5월) → 6.0(6월) → 5.5(7월) → 5.7(8월) → 6.0(9월) → 6.4(10월)



자료: (좌) IMF, "Staff Report in the context of the Requests for Disbursement under the Rapid Credit Facility and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June 2020 / (우) Fitch Solutions, "Bangladesh Country Risk Report", December 2020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전망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정부의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실현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2020/21회계연도 정부 목표: 8.2%)의 2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EIU는 경제성장률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2022년부터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20년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6%에서 4.75%로 인하(총 125bps)하였으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5.5%→4%) 및 예대율 규제 완화(85%→87%), 대출금리 상한선 도입(9% 상한, 예금금리는 평균 6%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국채 매입(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 확대를 도모함.

8)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September 2019. 방글라데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2018년부터 LNG를 수입함. IMF는 신규 가스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7년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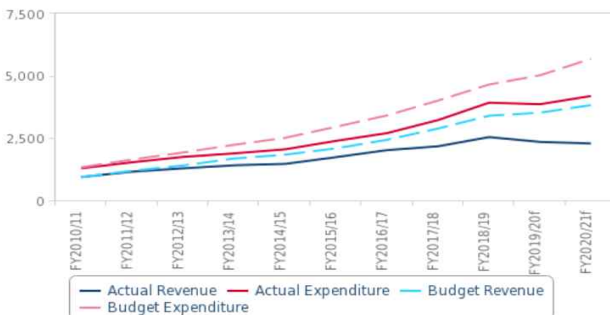
국내경제

- 방글라데시는 2003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사실상의 crawling peg 환율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평가됨(IMF).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최근 무역 거래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외환규제를 소폭 완화하였으나, IMF는 외환관리정책의 지속적인 유연화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2016년까지 연평균 77~78타카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17회계연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각 84.8타카 및 86.1타카로 전망되며,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2025년 93.9타카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취약한 세수기반 및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예상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세제, 낙후된 징세 시스템, 고질적인 납세 누락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9%를 넘지 못하며, 재정수입의 대부분(약 90%)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은 10% 수준으로, 동일 신용등급(BB, Fitch 기준)에 속한 국가군의 중위값(29%)의 1/3에 불과함.
- * 1인당 국민소득이 1,816달러(2019년)에 불과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납세자 수가 440만 명(총 노동인구의 6.9%) 수준
-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년 재정수입이 예산상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관리(재정적자 자체 관리목표: GDP의 5% 이내)하여 왔음. 단, 최빈국 졸업 등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인프라 관련 지출(연간개발계획 등)을 확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5/16회계연도의 -3.4%에서 2018/19회계연도의 -5.4%로 악화되고 있음.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동향(예산 대비 현황)



연도별 재정수지 동향(GDP 대비 비중, %)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재정수입	10.1	10.2	9.7	10.0
조세	8.8	9.0	8.6	8.9
재정지출	13.4	13.6	14.3	15.4
ADP	4.4	4.1	5.3	5.8
재정수지	-3.4	-3.3	-4.6	-5.4

자료: (좌) Fitch Solutions, "Bangladesh 2020/21 Budget to Miss Projections with Limited Support for the Poor", July 2020

(우) IMF, "Staff Report in the context of the Requests for Disbursement under the Rapid Credit Facility and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June 2020 / 방글라데시 재무부, "Bangladesh Economic Review 2020", October 2020

- 2019/20 및 2020/21회계연도에는 新부가가치세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의류 등 핵심 산업의 부진으로 세수기반이 위축되는 반면,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 에너지 보조금⁹⁾, 해외근로자 송금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정부의 관리목표를 넘어선 각각 -6.8% 및 -6.1%에 달할 전망이다.

9) IMF, "Staff Report in the context of the Requests for Disbursement under the Rapid Credit Facility and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June 2020. 방글라데시 정부는 에너지 수급가격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 국내 가스요금을 9.8타카/m³로 인상(33% 인상)함. 단, LNG 수입요금은 31타카/m³, 국내생산·수입분 혼합 LNG 요금은 14타카/m³에 달해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경제

- 한편, 2021/22회계연도부터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나, 전력·수자원·교육·보건 등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지출이 수반됨에 따라 2024/25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4%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IMF가 세무행정 체계 개편, 인센티브 세제 재검토, 징세대상 등 세수기반 확대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는 부가가치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2019/20회계연도부터 新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함. 동 법안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5% 선납 의무화(단, 2020년 5월 경기부양 목적으로 일부 산업 면제), 부가가치세 초과납부분 환급제 폐지, 자동차·화장품 등 소비재 과세 확대 등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한 반면, 생산·공급단계별 차등세율 적용(수입 15%, 국내생산 10%, 도매 7.5%, 소매 5%), 최저 과세표준액 상향(800만 타카 → 3,000만 타카) 등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음¹⁰⁾.
- 또한, 2020/21회계연도부터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율(35% → 32.5%)을 인하하고, 최근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율 인하(과세구간별 5%p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세수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4월 7,275억 타카(약 86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책 발표 후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무부 보고서¹¹⁾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조성된 코로나 대응 예산 규모는 1조 2,000억 타카(140억 달러 상당, GDP의 4.3%)로,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부문에 대한 유동성 제공, 의류 산업 등 수출산업 종사자 앞 임금 지원, 사회취약계층 앞 현금지원 등이 핵심임.
- 단, 정부 통계가 미비하여 비공식 경제부문의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대상자 앞 유동성 공급이 계획 대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Fitch Solutions).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요약)

예산 규모	2020년 4월 5일 최초 발표 후 코로나 대응 예산 총 1조 2,000억 타카 편성
주요 내용	○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저리 운영자금 대출: 4,000억 타카(대출금리 연 4.5%)
	○ 농업 부문 보조금 및 저리 운영자금 대출 등: 2,272억 타카
	○ 중소기업 앞 저리 운영자금 대출: 2,000억 타카(대출금리 연 4.0%)
	○ 수출진흥기금(Export Development Fund) 운영규모 확대(35억 달러 → 50억 달러) 및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앞 유동성 공급: 1,275억 타카(대출금리 연 2.0%)
	○ 의류 등 수출기업 종사자 앞 임금 지급용 펀드 조성: 500억 타카(대출금리 연 2.0%)
	○ 의료진 및 공무원, 군·경 등 코로나 관련 종사자 앞 보상금 지원: 85억 타카
	○ 최빈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126억 타카(약 500만 가구 대상, 각 2,500타카)
	○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금 감면대상 확대: 82억 타카(110만명 확대)
	○ 저소득층 앞 식료품(쌀, 밀) 무상·저가 공급: 327억 타카
	○ 코로나19 피해 가구 앞 주택건설자금 지원: 213억 타카
○ 상업은행 대출이자 부과 중단분(2020.4~5월)에 대한 보상금 지원: 200억 타카	

10) 방글라데시 재무부. 2019/20회계연도 기준 조세 수입은 부가가치세(39.6%), 소득세(33.1%), 관세 등 기타(27.3%)로 구성된 등 부가가치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한편, 동 기간 중 부가가치세 수입액은 8,639억 타카로 新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감소(전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931	-5,985	-7,095	-3,434	527
경상수지/GDP	0.4	-2.4	-2.6	-1.1	0.2
상 품 수 지	-6,244	-12,966	-17,284	-15,912	-14,864
상 품 수 출	34,122	35,301	38,682	38,759	30,786
상 품 수 입	40,366	48,267	55,966	54,671	45,650
외 환 보 유 액	30,295	31,289	29,973	30,648	39,699
총 외 채 잔 액	45,165	54,737	63,506	64,672	68,349
총외채잔액/GDP	20.4	21.9	23.2	21.4	21.5
D.S.R.	5.0	6.0	7.1	7.1	8.7

자료: IMF, EIU 및 OECD

해외근로자 송금 및 원조자금 유입 규모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전망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방글라데시는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저부가가치 기성복(ready made garment)을 생산·수출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원자재, 자본재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및 원조자금 유입분이 매년 증가하며 경상수지 적자 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음.

구분 (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f
상품수지	-62.4	-129.7	-172.8	-159.1	-148.6
서비스수지	-42.6	-46.3	-41.7	-36.5	-27.1
본원소득수지	-26.9	-23.9	-17.3	-26.1	-28.1
해외근로자 송금	149.3	127.7	149.8	164.2	182.1
이전소득수지	141.2	140.0	161.0	187.4	209.1

자료: IMF, EIU 및 방글라데시 재무부

- 2019/20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 등 상품 수출이 80억 달러(-20.6%)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위축 및 인프라 투자 부진에 따른 원·부자재와 자본재 수입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은 연료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상품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90억 달러, -16.5%)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전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한편,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자금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근로자 송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는 소폭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대외거래

- 중국의 관세 면제 조치(2020.7월)¹²⁾,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상품수출은 2020/21회계 연도부터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개발 및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요, 섬유 원부자재에 대한 과도한 수입의존도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GDP 대비 -1.1%, EIU)는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의류 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 규모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간 300억 달러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0년에는 상반기 의류 수출 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원조자금 유입 증가로,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년 대비 29.5% 급증한 397억 달러(2020년 11월 말 392억 달러, IMF)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8.4개월(BB등급 평균 4.8개월, Fitch)에 달하는 규모로 2019년(5.5개월) 대비 개선된 수치임.

외채상환능력

외채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양호한 수준

-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기구 원조자금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채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외채 관리노력과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의 75.7%(2019년)가 중장기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총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자금으로 구성되어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0%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음. 단, 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14.9%)이 크지 않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과중(10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2021 ^f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18.8	23.7	31.8	32.1	31.5	35.2
D.S.R.(%)	5.0	6.0	7.1	7.1	8.7	8.2
총외채잔액/총수출(%)	119.6	139.4	142.7	143.6	189.3	166.4

자료: OECD, EIU

- 2017년 단기외채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76억 달러 → 136억 달러)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잔액 비중은 2018년 50%를 초과하였음. 2020년에는 외환보유액 급증으로 동 지표가 39.6%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최근 국제기구로부터 확보한 원조자금의 상당액이 코로나19 대응 긴급자금으로 통상적인 원조자금 대비 상환기간이 짧은 만큼 추후 외화유동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25.0(2016) → 43.4(2017) → 52.5(2018) → 51.3(2019) → 39.6(2020)

12) 중국은 2020년 7월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약 97%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Fitch Solutions는 2021~24년 중 중국의 의류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방글라데시의 대 중국 의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외채상환능력

- 한편, 방글라데시의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는 투자부적격 등급에 따른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공적자금 이외의 해외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9년 11월 IFC의 현지화 대출 프로그램 하에 최초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카화 표시 채권(8억 타카/9.5백만 달러 상당, 3년 만기)을 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외화표시 국제채 발행 실적은 전무함.

공적채무 비중은 낮은 편이나, 과소한 재정수입이 채무상환의 적신호로 작용

- 2018/19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공적채무(국내+국외) 및 공적외채 잔액 비중은 각각 35.9% 및 14.9%로 인도, 스리랑카 등 주변국 대비 낮은 편이며, Moody's는 동국의 낮은 채무부담과 양허성 차관예외의 접근 가능성이 재정상 제약을 일정 부분 해소시킨다고 평가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채무건전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국내외 자금조달계획 및 GDP 대비 공적채무·외채잔액 비중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대응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긴급차관 도입으로 2019/20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적채무 및 공적외채 비중은 각각 38~39% 및 16%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IMF는 방글라데시의 채무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IMF는 2020년 5월 보고서¹³⁾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경제 충격은 2021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본 가정(Baseline)과 민감도 분석 결과 외채규모 및 원리금 상환부담 모두 중장기적으로 위험 수준 이내에서 관리 가능(2030년까지 D.S.R. 10% 내외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외채관련 지표가 악화될 수는 있으나 임계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한편, IMF는 방글라데시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 수입원 다양화, 양허성 차관의 지속 도입, 국내 자본시장 육성 등을 제안하였음.
- Moody's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공적채무의 약 40%, 공적외채의 약 90%가 다자간 또는 양자간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단,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이자지급 비중이 15%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용 제약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채무상환 위험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기관별 방글라데시의 채무 관련지표 전망(%)

구 분	2018/19	2019/20 ^e				2020/21 ^f			
		정부목표	IMF	Moody's	HSBC	정부목표	IMF	Moody's	HSBC
공적채무/GDP	35.9	36.3	39.1	36.3	38.9	+6.6	40.7	40.6	40.1
공적외채/GDP	14.9	11.2	16.0	-	12.4	+2.3	15.8	-	12.7
이자비용/재정수입	19.5	-	-	16.4	-	-	-	17.8	-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정부(9월), IMF(6월), Moody's(10월), HSBC(7월)

13) IMF, "Staff Report in the context of the Requests for Disbursement under the Rapid Credit Facility and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May 2020

구조적취약성

의류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고도화·다변화 노력 필요

-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약 1/5, 인도의 약 1/3에 불과한 낮은 임금수준과 풍부한 노동력, EU, 캐나다 등 선진국의 무역특혜를 기반으로 의류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였음. 그 결과 지난 30년간 제조업 등 2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음.

1990~2019년 중 방글라데시의 산업구조 변동 추이(GDP 대비 비중, %)

구분	1990/91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
농업	29.2	25.7	25.0	19.0	18.0	15.4	13.3
제조업·광업	21.1	24.9	26.2	25.4	27.4	31.5	35.4
서비스업	49.7	49.4	48.8	55.6	54.6	53.1	51.3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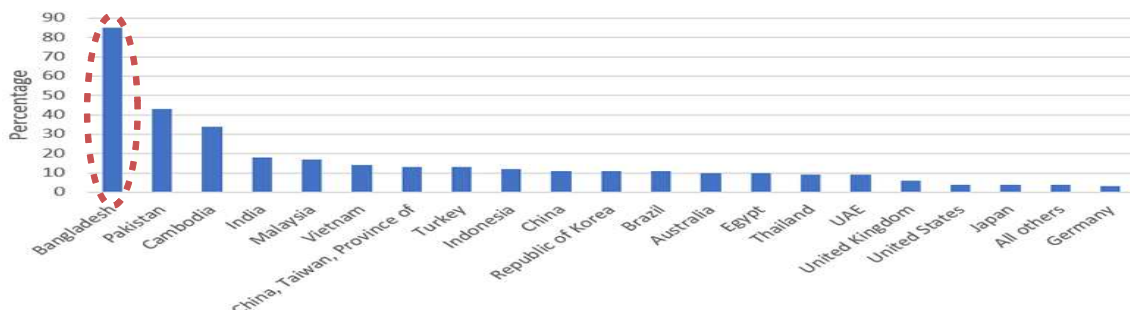
- 단, 의류제품이 전체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의류 산업 의존도가 과도하며, 수출시장도 EU 및 미국(2019/20회계연도 상품수출의 55.5% 및 17.3% 점유)에 70% 이상 편중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함.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은 원사·직물 등을 수입·가공하는 단순 봉제방식으로 의류 원·부자재 수입금액이 총 상품수입의 25.3%(2018/19회계연도 기준)에 달하며, 중국(47%), 인도(19%)에 직물 수입을 대부분 의존하여 상품가격 상승 및 공급 교란, 수입상대국의 교역규제 강화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한편, 기술력의 상대적 우위를 앞세운 베트남이 최근 발효된 EU와의 FTA(2020.8월)로 의류 수출경쟁을 격화¹⁴⁾시키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최빈국 졸업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선진국의 무역 특혜가 소멸될 예정임에 따라 산업 전반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상황임.

2019/20회계연도 주요 품목별 수출비중(%)

품목	의류	황마제품	신발·잡화	화학제품	석유제품	냉동식품	농산물	기타	합계
비중	83.0	2.6	0.9	0.6	0.1	1.4	1.4	10.0	100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전체 상품수출 대비 의류 수출 비중 비교(상위 20개 의류 수출국, 2019년, %)



자료: UNCTAD, "Textile and Garment Supply Chains in times of COVID-19: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May 2020

- 2016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의류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의류제품 개발, 유통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는 비스코스 원사 개발(황마 사용)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경공업, 가죽·신발 등 신변잡화, 플라스틱 제조업 등 차기 수출동력 육성을 위해 공단 주변 인프라 개선(2020.12월 발표, 약 4,000만 달러 소요)을 추진 중임.

14)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베트남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중 베트남의 의류·직물 수출금액이 13.2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방글라데시(11.9백만 달러)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등극함.

구조적취약성

낙후한 자금조달 여건 및 원조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세수기반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발생분의 30~35%를 매년 세계은행, IMF, ADB 등 국제기구 및 중국·일본 등으로부터의 양자간·다자간 원조자금으로 보전하고 있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수반하여 원조자금 유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확대,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이 이어져 원조자금 수혜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 원조자금 유입(방글라데시 재무부, 억 달러): 35.6(2015/16) → 36.8(2016/17) → 63.7(2017/18) → 65.4(2018/19) → 71.2(2019/20)

- 단, 방글라데시 재무부¹⁵⁾에 따르면 공적외채의 평균이자비용은 높은 원조자금 비중에 힘입어 통상 1%를 하회하였으나, 2015년 세계은행 기준 하위 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ies) 진입¹⁶⁾으로 차관 공여조건이 혼합신용(Blended Loan, 소프트론과 하드론 혼합) 형태로 바뀌면서 외채이자비용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2024년 최빈국 졸업 후에는 양허성 자금 수혜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향후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조달방안 모색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적외채 평균금리(%): 0.7(2014/15) → 0.8(2015/16) → 0.9(2016/17) → 1.4(2017/18) → 1.2(2018/19) → 1.4(2019/20)

-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자본시장의 한계로 인해 총 재원의 약 50%를 고금리(3년 평균 투자수익률 11.8%) 정부저축채권(National Savings Certificate, NSC)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이자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IMF는 정부 채무구조 개선을 위해 NSC 발행금리 인하, NSC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 및 투자자 관리 철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1인당 NSC 투자규모(통상 3백만 타카)를 제한하고 2019/20회계연도부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인상(이자수입 50만 타카 미만 5%, 50만 타카 이상 10%)하였음. 이로 인해 2019/20회계연도 중 NSC를 통한 자원조달비중은 전체 조달액의 8%로 급감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을 확대(21.3% → 54.9%)하고, 공기업의 은행 앞 예치금을 국고로 이전¹⁷⁾하는 방식을 통해 적자 보전을 시도함에 따라 시중 유동성 감소에 따른 경기부양책 효과 반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EIU).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

-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인 방글라데시는 우기인 6~10월에 연간 강우량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홍수 및 사이클론 피해가 발생하고 건기에는 가뭄 피해를 겪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기 시작 시점이 4·5월로 당겨지고 강우량이 불규칙해지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국토의 약 60%가 해발고도 5m 이하의 저지대로 조수 피해 및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구밀도 (1,265명/km²)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아 기후변화 관련 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임.
- 방글라데시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갠지스 강 하구의 총적평야, 메그나 강(갠지스 강 지류) 어귀 및 치타공 해안 지역은 매년 해수면이 평균 0.6~2.1cm씩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IMF는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으로 2050년까지 국토의 17%, 농산물 생산량의 30%가 유실될 것이며,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1/3이 강제이주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15) 방글라데시 재무부, "Medium Term Macroeconomic Policy Statement, 2020-21 to 2022-23", June 2020

16) 2015년 방글라데시의 1인당 GNI는 1,220달러로 당시 세계은행의 하위중소득국 진입 기준(1,046달러 이상)을 초과함.

17) 2019년 9월 방글라데시 내각은 "인프라 개선 등 공공복지 향상 목적으로 공기업의 유휴자금을 국고에 이전시킬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모하마드 샤필 알람 내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의결 당시 68개 공기업의 은행 앞 예치금 잔액은 약 2조 1,000억 타카(약 250억 달러)로 확인됨.

구조적취약성

- 글로벌 기후위험지수 보고서¹⁸⁾는 지난 20년(1999~2018년)간 기후 관련 손실을 가장 많이 입은 국가 상위 10개국* 중 방글라데시를 7위로 꼽았음. 지난 20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자연재해는 총 191건, 총 손실규모는 16.9억 달러(PPP 기준)으로 집계됨.
 - *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순
- 특히, 방글라데시는 전체 노동인구의 40.6%(2016/17회계연도 기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소득 감소, 식량 공급원 붕괴 등 사회경제적 영향도 큼.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대비 5% 감축)를 제시하고, 2018년 초장기 기후변화 대책인 '방글라데시 델타플랜 2100'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9년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전략 및 실행방안(BCCSAP)'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신탁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380억 타카를 투입하였음. 한편, 델타플랜 2100은 '2030년까지 절대빈곤층 구제 및 상위 중소득국 진입, 2041년 고소득국 진입' 등 '비전 2041'과 연계된 상위 목표 하에, 해안·강 유역 정비, 방조제 건설 및 주거시설 개선, 수자원 확보체계 개선, 재난 대응 행정체계 및 R&D 시설 확충 등 80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방글라데시 델타펀드'를 별도로 조성하여 매년 GDP의 0.8~1.0%(80개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GDP의 2.5% 투입 필요)를 배분하고 있음.
- 단, 1998년 국토의 2/3이 침수되고 GDP의 약 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던 사상 최악의 홍수 사태에 이어, 금년 여름 22년 만에 2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호우로 또다시 국토의 1/3이 침수되고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것으로 판단됨.

18) German 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0:Who Suffers Most from Extreme Weather Events?", December 2019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중국·인도 양대 시장을 연결하는 유리한 입지조건

- 방글라데시는 총 인구 1억 7,000만 명(2020년 예상, CIA) 중 66.7%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하며, UN의 세계인구전망¹⁹⁾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8,000만 명, 2050년까지 1억 9,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동력이 풍부함. 또한,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절반(45.1%)에 달하며, 특히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26.5%로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세계 8위(아시아 5위)의 대규모 인구는 향후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방글라데시를 거대 내수시장으로 성장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임. UN에 따르면, 수도 다카는 2050년에 인구 기준 세계 3대 도시(추정인구 35백만 명, 1·2위는 인도의 뭄바이와 델리)로 등극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6.5	18.6	40.7	7.4	6.8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20년 추정치)

- 한편, 방글라데시의 낮은 임금수준은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기업의 시장진입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9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²⁰⁾의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제조업 부문 월평균 임금(기본급)은 104달러로 중국(493달러), 태국(446달러), 인도(278달러), 베트남(236달러), 캄보디아(196달러), 라오스(160달러), 미얀마(159달러), 스리랑카(130달러) 등 주변국 대비 임금경쟁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
- 방글라데시는 저렴한 임금수준,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역특혜 등 개도국의 보편적인 강점에 더해 거대 시장들인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프런티어 마켓(Frontier Market)²¹⁾으로 주목받고 있음.
- 서아시아 벙글만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인도-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한·중·일,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SEAN 10개국, 서쪽으로는 오만, UAE 등 중동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 및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중국에 집중된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변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19) United Nations, "The 2019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August 2019

20) JETRO, "2019 JETRO Survey on Business Conditions of Japanese Companies in Asia and Oceania", November 2019

21) 인도, 브라질 등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던 대규모 신흥국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발전가능성은 큰 남아시아-아프리카 국가 등을 지칭함. Goldman Sachs는 브릭스(BRICS)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잠재력이 있는 11개 국가('Next Eleven')의 하나로 방글라데시를 선정함.

성장잠재력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정부는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특구 조성,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실시 중임.
- 2010년 산업 다변화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경제특구법을 발효하고, 총리실 산하에 전담관청(BEZA)을 설립하여 2030년까지 총 100개의 국영·민간 경제특구(Economic Zone) 조성을 추진 중임(현재 93개 설립 허가). 동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전력·용수 등 기본 인프라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세·배당소득세·자본소득세 면제(10년간 100%), 원부자재 수입관세 및 등록세·인지세 면제 혜택 등을 부여받음. 정부는 동 경제특구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 1,000만 명, 수출 400억 달러 추가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음.
- 한편, 2019년에는 투자청(BIDA)을 통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총 21개의 사업 등록·운영 관련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사업등록세 인하, 전산인증 수수료 무료화(2019년), 부동산 등록세 인하(2020년)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지속 도입 중임.
-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는 매년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연간개발계획(ADP)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9/20회계연도 중 ADP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대응 재원 우선 확보를 위해 당초 2조 타카에서 회기 중 1조 9,000억 타카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21회계연도에는 2조 1,000억 타카(242억 달러 상당, 정부 예산의 36.1%)로 전기 대비 6.3% 확대됨.
- EIU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중국·일본 등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향후 4년 내에 400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등에 따른 건설 중단, 자본재 수입 지연 등으로 사업 공기가 지연되는 등 추진동력이 감소하였으나, 독립 50주년이라는 재도약 모멘텀을 맞이하는 2021년에는 신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방글라데시의 주요 인프라 추진 사업(EIU, 2020.9월 기준)

프로젝트명	비용(억 달러)	사업기간	프로젝트명	비용(억 달러)	사업기간
카르나폴리 수중터널	12	2017~21	다카-차토그람 고속철	14	2018~22
람팔 석탄화력발전	50	2017~22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	45	2014~23
파드마 다목적 대교	37	2009~22	다카 고속철	28	2012~24
차토그람-콕스 바자 철도	21	2018~22	파드마 철도 연결	46	2016~24
다카 고속도로	12	2011~22	루푸르 원전	127	2017~24

-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09년 7억 달러 → 2019년 16억 달러), 기업경영여건도 점차 개선 중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에서는 역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2020년 순위(168위/190개국)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하는 등 자체 순위는 개선되었음.
- * 주요 경쟁국 순위(2020): 인도(63위), 스리랑카(99위), 파키스탄(108위), 캄보디아(144위), 미얀마(165위)
- 특히, 세부 평가내역에서는 신용획득(119위, 25점 → 45점), 창업(131위, 80.8점 → 82.4점), 전력수급(176위, 30.8점 → 34.9점) 등의 항목들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정책성과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계획 추진 의지에 힘입은 최빈국 졸업 가시화

- 2008년 총선 당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끈 국부(國父)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천명한 '빈곤 없는 풍요로운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 2021년까지 중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2021'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집권 이후 동 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중임.
- 제7차 5개년 계획(2016~20년)은 2020년까지 ①경제성장률 8%(연평균 7.4%), ②연간 수출액 700억 달러, ③총고정투자 34.4% 달성, ④빈곤층(최저생계비 기준) 및 극빈층(1.9달러/일) 비율 감축(각 18.6% 및 8.9%) 등을 목표로 함.
- 한편, 2020년 2월 방글라데시 국회는 '비전 2021'의 장기목표인 '비전 2041' 실현을 위한 '2021~41 연계계획(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41)'을 승인함.
- '비전 2041'은 204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500달러 달성을로 고소득국 진입 및 빈곤 퇴치를 2대 목표로 천명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경제성장률 목표는 2031년 9%에서 2041년 9.9%로, 극빈층 비율은 2031년 2.5%에서 2041년 0.7%로, 빈곤층 비율은 2031년 7%에서 2041년 3% 이하로 설정함.
- '2021-41 연계계획'은 2031년까지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①수출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개편, ②농업 부문 현대화를 통한 식량안전 확보 및 영양 실태 개선, ③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통한 도시화 및 디지털 경제화, ④에너지·인프라 지속 개발, ⑤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⑥기술 기반 사회 구현을 통한 지식 허브 국가로의 도약 등의 하위목표를 담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1월 제8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025) 초안을 공개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경기부양 지출 반영 등을 위해 현재까지 계획을 수정 중임. 동 계획은 '2021~41 연계계획' 달성을 위한 첫 5년의 세부계획으로, 주요 전략은 ①코로나19 충격 극복, ②경제 성장 및 빈곤 감축 가속화, 고용 창출 확대, ③전 국민의 고용 참여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④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개발 및 에너지원 발굴, ⑤상위 중소득국 진입에 필요한 행정체계 구축 등임.

제8차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① 주요 추진목표(~2025년)

- [경제성장률] 8.5%(5년 평균 8%), [빈곤층 비율] 15.6%, [극빈층 비율] 7.4%
- [총고정투자] GDP의 37%(민간 27%, 정부 10%) *보건·교육·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② 포용적 경제성장 세부 전략

- 노동집약적·수출지향적 제조업 육성, 농업부문 다변화, 중소기업 성장동력 창출, 서비스업 현대화, 관광·ICT 등 비요소 서비스업 확대, ICT 기반 창업환경 구축, 해외취업 강화

③ 정부지출 계획(GDP 대비 비중, %)

구분	총지출	경상지출	ADP	교육	보건	사회보장	전력·수송·에너지	농업·농촌개발	수자원
2018/19	16.3	10.3	6.0	2.2	0.7	1.2	2.4	0.9	1.0
2024/25	19.1	12.1	7.0	3.0	2.0	2.0	2.0	1.0	2.0

자료: 방글라데시 국가계획위원회, "8th Five Year Plan FY2021-FY2025: Promoting Prosperity and Fostering Inclusives", September 2020

정책성과

- 정부의 꾸준한 개발 노력에 힘입어 방글라데시는 2015년 세계은행 기준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었으며, 2018년에는 UN의 최빈국 졸업요건을 처음으로 달성하면서 2024년 졸업 가능성이 높아짐.
- UN의 최빈국 분류기준은 1인당 GNI,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의 3가지 지표로 구성되며, 세 지표 중 2개 이상을 2회 연속(평가주기 3년) 충족하면 차기 회차에 UN 개발정책위원회의 졸업 인증을 받음. 방글라데시는 2018년 1인당 GNI 1,274달러(기준 1,230달러 이상), 인적자산지수 73.2점(기준 66점 이상), 경제적 취약도 25.2점(32점 이하)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2차 심사(2019년까지의 지표 사용) 통과시 2024년 GDP 규모 1,000억 달러 이상(IMF 기준) 국가 최초로 졸업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됨.
- * UN에 따르면 1971년 이후 보츠와나, 몰디브, 사모아 제도,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바누아투 등 6개국이 최빈국을 졸업하였으며, 2024년까지 부탄, 상투메 프린시페, 솔로몬제도, 앙골라가 추가로 졸업할 예정임.
- 한편, 빈곤 퇴치 및 사회복지 개선 노력도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어, 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1인당 GNI는 2009/10회계연도의 843달러에서 2018/19회계연도 1,909달러로 2.3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빈곤층 비율은 31.5%에서 20.5%로, 극빈층 비율은 17.6%에서 1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UN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2010년 66.9세에서 2019년 72.6세, 출생아 1,000명당 5세 이하 사망률은 52명에서 25.1명, 평균교육기간은 4.8년에서 6.2년, 기대교육기간은 8.1년에서 11.6년으로 개선되었으며, 종합점수도 0.469점에서 0.632점으로 상승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경제 구축 노력

- 방글라데시 정부는 디지털 경제 구축을 통한 산업 생산성 및 생활수준 제고를 목표로 2008년 '디지털 방글라데시' 이니셔티브를 제창하고, 하이테크 파크 설립(IT 및 IT 기반 서비스업 전용 산업단지, 28개 구축 예정),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기술인력 양성, 전자정부 수립 추진 등 ICT 부문을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감행하고 있음.
-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본인의 아들을 ICT 정책 보좌관에 임명하고, 12월 12일을 'National ICT Day'로 지정하는 등 ICT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였음. 한편, 제8차 5개년 계획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등 ICT 서비스 수출 추진, 인력 육성 및 R&D 투자 등 ICT 부문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모바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으로, 모바일 가입자 수는 2014년 말 12만 명에서 2020년 11월 1억 7,000만 명으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 수도 2014년 말 2,500만 명에서 2020년 9월 9,500만 명으로 급증하였음. 한편, 방글라데시는 2013년 3G 서비스, 2018년 4G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2021년 5G 서비스를 개시하여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2020년 11월 현재 1억 1,000만 명에 그쳐 시장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방글라데시의 ICT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2017년, ADB)로, 정부는 2021년 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EIU는 중국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로봇·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저난도 기술을 적용하는 일부 ICT산업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저연령·저임금·영어 구사력²²⁾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2) Education First,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November 2020. 방글라데시의 영어숙련도 지수는 100개국 중 63위로 인도(50위), 파키스탄(61위), 베트남(65위), 스리랑카(68위), 인도네시아(74위), 캄보디아(84위), 미얀마(93위) 등 역내 경쟁국 대비 비교적 높은 편임.

정치안정

하시나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초기 단계로 평가

-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이후 수 차례의 군부 쿠데타와 대통령 암살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다가 1991년 최초의 민선 정부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2006년 칼레다 지아 총리(방글라데시 국민당: BNP) 임기 종료 후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부가 또다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2008년 말 총선 결과 아와미 연맹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취임하였음.
- 방글라데시에는 40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하시나 총리의 아와미 연맹과 칼레다 지아 당수의 방글라데시 국민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등 양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1월 총선에서는 BNP를 비롯한 야당 연합이 총선 불참을 선언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선 당일에만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위 참가자 수천 명이 연행되었음. 아와미 연맹은 당초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하여 하시나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역대 투표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항상 이례적으로 높았던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다카 투표율 22%, 전국 투표율 약 40%라는 선거 결과는 반쪽짜리 선거라는 비난을 야기하였음.
- 한편, 2018년 12월 총선 결과 아와미 연맹이 비례대표 의석(50석) 포함 국회 내 총 350석 중 299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2014년 이후 BNP를 포함한 야당의 입지가 약화된 상태에서 하시나 총리의 15년 장기집권 체제가 확정되어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됨. EIU는 최근 BNP의 세력 약화로 지지층이 감소한 가운데 2020년 이루어진 총 6번의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아와미 연맹이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2023년 12월 총선에서도 아와미 연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단, BNP의 칼레다 지아 당수가 2018년 2월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7년형)되어 총선 입후보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총선 1개월 전부터 수십 개의 야당 후보 선거사무소가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총선 전날부터 총선 당일 자정까지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가 3G 및 4G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언론 탄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가 적발될 경우 최장 14년의 구금에 처해짐. 동 기관에서 발표한 방글라데시의 2020년 국제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151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며, 2008년 136위(총 173개국)에서 계속 하락 중임. 한편,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2008년 91위/167위에서 2019년 80위/167위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평가점수(5.88점/10점) 상으로는 독재정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로 분류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및 가계소득 감소는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 우려

- 아와미 연맹은 2009년 집권 이후 매년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단, EIU, IHS Markit, Fitch Solutions 모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실업률 증가 및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된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정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함.

정치안정

- IHS Markit은 2018~19년의 교통안전 대책 요구 시위, 물가 안정화 요구 시위, 의류업계 최저임금 인상 시위 등은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정부 소요 사태를 촉발한 사례라고 설명함.
- BNP는 2014년 총선 이후 수천 명의 정당 관계자가 체포된 가운데 칼레다 지아 대표가 구금되고 예비 후계자(칼레다 지아 대표의 장남)가 해외로 추방되면서 지지층이 감소하고 있음. 단, 방글라데시는 야당이 학생, 근로자 등을 선동하여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사례가 빈번한 만큼, 2021년 3월 칼레다 지아 당수에 대한 구류 해제 조치(2020년 3월 건강 악화로 1년간 구류 해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사회안정

로힝야족 난민 문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 로힝야(Rohingya)족은 19세기 식민 지배 당시 영국이 버마족 견제를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이주시킨 수니파 무슬림족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접경지대인 라카인 주(州)에 주로 거주하여 왔음. 버마족 세력 약화를 위해 소수민족을 전략적으로 우대했던 영국의 식민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미얀마에서는 1948년 독립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수민족 반군의 무력 대항으로 유혈 충돌이 지속되어 왔음.
- 1982년 시민권법 개정 당시 미얀마 시민으로 공식 인정받은 135개 소수민족과 달리 로힝야족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시민권 및 이에 따른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취업 및 교육 기회 박탈, 개종 강요 등 강도 높은 탄압을 받아왔음. 1977년 군부에 의한 유혈 탄압 이후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및 중동 지역으로 피난하였으며, 2010년대에도 로힝야 반군과 군·경 간의 충돌 여파로 피난이 계속되면서 방글라데시에만 2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이주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2017년 8월 로힝야 반군의 미얀마 국경 초소 30여 곳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여 미얀마 군·경이 라카인 주 417개 마을 중 288개 마을을 전소 또는 부분 파손하고, 5세 이하 영·유아 730명을 포함한 6,700~7,000명 이상의 로힝야족을 첫 한 달만에 학살²³⁾하는 등 추후 UN이 "인종청소의 교과서"로 규탄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자행되었음. 이에 따라 로힝야족 약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으며, UN 산하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86만 4,000명의 이주민이 라카인 주 북쪽의 방글라데시 영토인 콕스 바자 주(州)의 난민 캠프에 거주 중임.



23) BBC, "Myanmar Rohingy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crisis", 23 January 2020

사회안정

- 2017년 11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합동조직을 구성하고 로힝야족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로힝야족에게 미얀마 정부가 공식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복잡화하고 있으며, 로힝야족 난민들이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미얀마로의 복귀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송환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방글라데시 북남대학교(NSU)가 2019년 7월 UN 난민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와의 당초 합의대로 일일 300명씩 난민 송환시 총 12년이 소요되며, 인구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총 92억 달러의 수용·송환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송환 실패시 최초 5년 간 난민 수용비용은 70억 달러 이상 소요되어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10월에도 미국·영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6억 달러의 원조자금이 유입되는 등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IMF는 송환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기부 피로감(Donor Fatigue)이 고조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음. 또한, 로힝야족 난민들의 초저임금 채용에 따른 현지인 고용 감소, 인구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무슬림 강경파인 로힝야족과 종교적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글라데시 국민들과의 마찰 고조 등 간접비용 발생도 우려됨.
- 송환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족 난민 10만 명을 치타공에서 40km 가량 떨어진 바산차르 섬에 이주시키기로 하고, 2019년 10월부터 약 3억 달러를 투입하여 대규모 거주지를 구축 하였음. 난민 캠프 내의 높은 밀집도 및 열악한 위생시설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2020년 12월 처음으로 바산차르 섬에 1,600명의 난민을 이주시켰음. 단, 바산차르 섬 자체가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신생 무인도로 생활기반이 전무하고, 사이클론 및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일부 난민들이 이주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 우려가 제기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및 대규모 시위 가능성 상존

-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도(수니파 중심), 10%가 힌두교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미미하며, 이교도인 힌두교에도 정부가 신전 부지를 저가에 제공하는 등 종교적으로 비교적 관대한 사회임. 단, 2015년부터 IS(이슬람국가) 세력이 유입되면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으며, IHS Markit은 수도 다카를 중심으로 종교적 소수자, 외국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2016년 7월 대사관 밀집구역의 고급 식당에서 IS의 테러로 외국인 20명 및 경찰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경찰 대테러조직 등을 겨냥한 3건의 테러로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경찰 등 40여 명이 부상당했음.
- 2016년 사건 이후 정부가 테러 조직 및 자금공급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실시하면서 IS의 활동이 일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2019년 5월 IS가 벵갈 지역을 관할할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고,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IS의 테러 대상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2019년 4월 다카에서 발생한 IED(급조폭발물) 테러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집권 여당인 아와미 연맹 청사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음.

사회안정

- 한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이 반정부 소요 사태를 선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4월에는 일일 5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의류 산업 근로자들이 운집하여 미지급 급여 보상,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지속되었음.
- ILO 보고서²⁴⁾에 따르면 43%의 의류 제조공장이 팬데믹 이전 대비 50% 이하의 가동률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수출협회는 2020년 4월 글로벌 구매업체들의 주문 취소·지연 이후 7만 명 이상의 의류 산업 근로자가 실직한 것으로 보이며, 방글라데시 개발연구소(BIDS)는 코로나19 여파로 방글라데시 전체 근로자의 약 13%가 실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함. 한편, 세계은행²⁵⁾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및 비농업 부문 자영업자, 제조업 근로자가 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극빈층 비율이 10%대 초반에서 2019/20회계연도 중 21.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경우 환경 오염 및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017년 1월 다카에서 일어난 람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 등을 살포하며 무력 진압하였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 및 투자 저해요소로 작용

-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집권이 10년 이상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표 야당인 BNP도 칼레다 지아 당수가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2018년 체포되어 현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부재함에 따라 관료 조직 전반에 부패가 성행하고 있음. 민선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견재한 군부 세력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현 정권이 에너지, 은행, 부동산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군부의 경제적 이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도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146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음. 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캄보디아(162위)에 이어 2번째로 열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현지 진출 기업 사이에서는 사업 인·허가 획득 및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비공식적인 대가(일명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IHS Markit에 따르면, 에너지 및 통신 사업 부문의 부패 정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방글라데시는 정부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기구 원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패 수준은 원조자금 조달 성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2년 세계은행은 현지 공무원의 부패 혐의를 근거로 방글라데시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12억 달러 차관 프로그램을 취소한 바 있음.

2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Supply Chain Ripple Effect: How COVID-19 is affecting garment workers and factories in Asia and the Pacific", October 2020

25) 세계은행, "South Asia Economic Focus: Beaten or Broken? Informality and Covid19", October 2020

국제관계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균형·실리주의 외교 노선 추구

- 방글라데시는 중국, 인도, 미국 등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여 투자·원조·교역 혜택 등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비동맹 경제실리 외교에 주력하고 있음.
- 1971년 파키스탄과의 독립 전쟁 당시 방글라데시를 지원한 인도는 전통적 우방국으로, 군부 독재 시절 인도로 망명(1975~81년)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 취임 이후 인도와의 유대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 특히 1974년 합의 후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행이 어려웠던 국경협정을 2015년 8월 신규 체결하여 양국 월경지의 162개 마을(방글라데시인 거주지 51개, 인도인 거주지 111개)을 교환하고 국경 분쟁을 일단락한 사례는 정치적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양국은 정상간 상호 방문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9년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앞 치타공 및 몽글라 항구 사용권 부여, 방글라데시-인도 간 LPG 수송채널 건설 등 7개 협정을 체결하였음. 2020년 12월 회담에서도 7개의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국경 지역의 칠라하티-할디바리 철도 개통(1965년 이후 폐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가능성 협의 및 코로나19 백신 우선공급 약속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방글라데시는 최근 인도 제약사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00만 회분을 확보하였음.
- 인도는 2019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제2위 상품 공급원(총 상품수입액의 14.3%, ITC Trade Map)이며, 최근 10년간 전력·교통 등 인프라 및 군수물자 확충 지원을 위해 75억 달러 상당의 양허성 크레딧 라인*을 제공하였음.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대일로 사업 등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인도의 대 방글라데시 경제적 지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 크레딧 라인 제공 추이(신규설정 기준) : 10억 달러(2011) → 20억 달러(2015) → 45억 달러(2017)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입상대국(2019년 총 상품수입액의 30%, ITC Trade Map)이자 군수품 공급원이며,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2010년대부터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양 일대의 주요 항구(치타공 항구 포함)를 군사·경제기지로 개발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을 추진하면서 안보협력도 한층 공고해지고 있음.
- 2016년 10월에는 약 30년 만에 중국 정상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전력·교통·항만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240억 달러 규모의 MOU(27건)를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ICT, 농업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양국 기업 간 136억 달러 상당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의 대 중국 수출품목의 97%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류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TIU에 따르면, 미국은 바이든 후보자 취임 이후 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인도양 국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2013년부터 중단된 대 방글라데시 관세특혜를 재개(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제2위 수출대상국)할 가능성이 전망됨.
- 일본도 에너지 개발 및 생산기지 확보 등을 위한 대 방글라데시 투자를 지속 중임. 2020년 4월 일본 정부는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자국 기업이 리쇼어링 또는 남아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시 보조금(총 2,435억엔)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7월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약 32억 달러의 원조자금(누적 지원금액 약 22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

국제관계

선진국 무역특혜 축소에 대비, 보호무역 기조에서 개방 노선으로 변화

- 방글라데시는 EU, 캐나다 등 주요 수출상대국들로부터 최빈국 지위에 따른 무역특혜를 향유하고 있으며, 수입관세가 재정수입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CPTPP나 RCEP 등²⁶⁾ 역내 대규모 FTA 참여를 거부하여 왔음. 단, 최빈국 졸업시 무역특혜가 소멸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사유로 EU의 무역특혜 종료시점을 2027년 이후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PTA, FTA 등 무역협정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0년 12월 방글라데시는 부탄과 PTA(특혜무역협정)를 체결하였음. 이는 방글라데시의 첫 양자 간 무역협정으로, 동 협정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의류, 향마제품, 가공식품, 전자기기 등 100개 품목의 대 부탄 수출에 대해, 부탄은 농산물, 목가공품 등 34개 품목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됨. 이외에도 역내 수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터키, 나이지리아 등 역외국가와도 FTA 또는 PTA 체결을 타진 중임.
- 중동 지역은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중점 파견지역으로 해외근로자 소득의 주된 원천임. 이에 방글라데시는 1974년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등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 강화에 힘을 쏟고 있음.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는 2019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0년 2월에도 에너지·항만·통신 등 인프라 투자사업(300억 달러 상당)을 제안받았으며, UAE와는 민간 투자자를 통해 경제특구 개발사업 등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등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

미얀마 및 파키스탄과는 불편한 관계 지속

- 미얀마와는 천연가스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실리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및 불법 마약 거래, 로힝야족 난민 송환 문제 등이 외교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2017년 8월 70만여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일시에 유입된 이후 미얀마 정부가 송환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파키스탄과는 독립 이후 중국 정부 등의 개입 하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02년 파키스탄 대통령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독립전쟁 당시의 학살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2010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독립전쟁 전범자 재판을 시작하면서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음. 전범 처리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항의가 계속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6년 SAARC²⁷⁾ 정상회담에 불참하였으며, 양국 관계 악화에 따라 SAARC도 역내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독립전쟁 이후 방글라데시에 체류 중인 20만 명 상당의 파키스탄 난민 송환 문제, 파키스탄 내 은행에 동결된 방글라데시 자산(45억 달러 상당) 반환 문제 등도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 중임.

26) CPTPP: 포괄적·점진적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 등 11개국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27) SAARC: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몰디브 등 7개국

외채상환태도

2007년 이후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

- 방글라데시는 2007년까지 일본 등 원조국의 외채 탕감을 받은 사례(2003~07년, 4.1억 달러 상당)가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을 국제기구·정부간 원조자금에 의존하여 원조 공여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음.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35.9억 달러(단기 6.2억 달러, 중장기 29.7억 달러)* 중 중장기 지원잔액 14.4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연체비율은 0.4%로 미미한 수준임.
* 일본(974백만 달러), 독일(512백만 달러), 스위스(547백만 달러), 한국(230백만 달러) 등 20개 ECA 잔액 보유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단, 미 수은은 공공차주 지원시 재무부·중앙은행 등 방글라데시 정부 측 지원의향서를 요구하고 있음. 독일 Hermes 또한 건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 부문 앞 중장기 자금 지원시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보증서 제출을 요하고 있음. 한편, 영국 UKEF는 사회경제적 발전 지원 등 지속가능대출기준(Sustainable Lending Criteria)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0.06)	5등급 (2019.06)
Moody's	Ba3 (2020.03)	Ba3 (2018.10)
Fitch	BB- (2020.11)	BB- (2019.11)

OECD는 지속적으로 5등급 유지

- OECD는 꾸준한 경제성장 추세, 하시나 총리 재선에 따른 정치 안정성 제고,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 대다수가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Moody's(2020.10월 보고서)는 방글라데시가 취약한 세수기반,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의류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및 기후변화 취약성 등 다수의 성장 저해요소를 안고 있으나, 풍부한 외환보유액 규모, GDP 대비 낮은 공적채무(공적외채) 비중, 양허성 자금에의 높은 접근성 등이 대외충격 흡수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2020년 중 세계은행(23억 달러), ADB(14억 달러), IMF(7.3억 달러) 등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Fitch(2020.11월 보고서) 또한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 대비 낮은 외채 비중,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의지 및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등을 높이 평가하였음. 단, GDP 대비 매우 낮은 재정수입 비중이 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저해하는 가운데, 경기 위축에 따른 공기업 우발채무 증가 가능성, 국영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2019년 말 23.9%,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은 추가적인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방글라데시는 의류제품 수출 증가,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힘입은 민간소비 확대,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6%를 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초로 최빈국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제정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음. 단, 2019/20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3.8%로 둔화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원조로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및 전력·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으나, GDP 대비 안정적인 외채비중,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양허성 자금에의 높은 접근성 등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채무상환불능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하시나 총리의 아와미 연맹이 2018년 총선에서도 압승하여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나, 선거 과정에서의 야당 인사 탄압과 언론 통제 등을 고려시 민주주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로 판단됨. 한편, 실업 증가에 따른 대규모 시위 가능성, 로힝야족 난민 송환 문제 등 사회 불안요인이 상존함.
- 향후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세수 기반 개선 등을 통한 재정수지 건전화, 인프라 확충 및 투자 여건 개선, 부정부패 척결 노력 등이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